

다석(多夕) 유영모 선생의 성경이해와 영성¹⁾

박 재 순 (씨올사상연구소장)

1. 성경 이해

유영모는 성경을 몸과 맘과 열로 읽었으며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이 살고 죽는 이야기로 읽었다. 성경에 나오는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문구와 내용을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정당화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런 것들은 그대로 두고 '나'의 몸과 맘과 열을 살리고 높이 솟아오르게 하는 말씀으로 성경을 읽었다. 그는 늘 성경을 가지고 다니며 읽었으나 성경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지는 않았다. 그는 성경을 문화적 주체성을 가지고 체험적으로 읽고 받아들이고 실천하였다. 그는 성경의 말씀을 몸으로 살려고 했다.

유영모는 성경 가운데 특히 요한복음을 좋아했고 요한복음의 기본사상을 받아들였다. 유영모의 그리스도 이해는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의 신학과 영성을 기초로 삼고 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1) 이 글은 필자의 책 『다석 유영모』(현암사, 2008)의 10장과 11장을 요약하고 새롭게 정리한 것이다.

땅에 내려 왔다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강조했는데 다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인간이 걸어야 할 ‘길’이라 했다.²⁾ 그리스도를 따라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다석종교사상의 중심을 이룬다.

요한복음은 사랑, 일치, 공동체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지금 여기의 삶을 강조했고 앎과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말했다.³⁾ 요한신학은 바울신학과 구별된다. 율법문제를 가지고 씌름한 바울신학은 논리적이고 변증적이며 법과 행정이 발달한 로마와 유럽에 맞고 공동체적 사립과 함께 앎과 영성과 실천의 일치를 강조한 요한신학은 영성과 공동체의 사고를 많이 한 소아시아에 맞았다. 바울이 주로 소아시아에서 선교활동을 했으나 바울의 신학은 이태리와 유럽에 받아들여져서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가 발달했고 소아시아에서는 요한신학이 받아들여져 정교회가 발달했다. 요한의 영성은 공동체적이고 실천적이므로 아시아의 영성과 통할 수 있다.

1) 예수 이해

40대 말에 기독교 신앙을 새롭게 깊이 체험한 다석은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말씀(道)으로 몸 이루고, 뜻을 받아 맘 하시니, 한울밖엔 집이 없고, 걸음걸이는 참과 옳음! 뵈오니 ‘한 나신 아들’(獨生子) 예수신가 하노라.”

여기서 다석은 ‘뜻’에 대해서 주(注)를 달아 설명하였다. “우주전체(宇宙全體)의 생명(生命)이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이 되게 하시라는 아버지의 뜻”⁴⁾ 여기서 다석은 예수의 사명이 우주 전체의 생명이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로 되게 하는데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다석에 따르면 예수도 다른 인간들도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땅바닥만 헤매는 세상은 못난 아들들이 차지했다. 그런데 위에서 문이 열리고

2) 유영모, “꽃피”, 『다석일지』 (영인본) 상. 828쪽.

3) 요한복음 1,1-14; 15,1 이하. 17,1-26; 요일 1,3; 2,10;11; 3,24; 4,7 이하 참조.

4) 유영모, “소식”(4), 『제소리』 354-5쪽.

그리스도가 와서 ‘죽음으로써 사는 길’을 가면서 사랑을 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세상에 구원받을 길이 열렸다. 다석은 십자가를 이렇게 풀이했다.

“가로 가던 누리는 가로대에 못 박히고 바로 솟아 나갈 얼마 머리 위로 솟구치니 영원을 허전타 마라 길이길이 삶이다.”⁵⁾

세상에서 위로 올라갈 길이 십자가에서 열렸다. 예수는 인류가 함께 갈 생명의 길을 열고 그 길로 갔을 뿐, 인생을 대신 살아 주거나 구원을 대신 이루어 준 것이 아니다.

다석은 예수를 보는 두 가지 관점을 분명히 구별한다. 세상적인 욕심에 따라 사는 인생관으로 보면 예수는 ‘미천한데서 나서 30평생에 출세한 것이 없고, 최종 3년간 광인 지목을 받다가 폭사를 당한’ 인간이었다.⁶⁾ 예수는 끈게 살았으나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이다. 실패한 예수를 따르는 것은 “꿈음이 최후의 승리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예수의 실패는 정의(正義)의 편의 실패이다. 다석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정의 편의 실패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정의를 믿고, 정의가 불가능한 세상에 정의가 있도록 욕능(欲能, 정의를 실현할 능력을 얻으려함)하려는 데 있다.”⁷⁾

위에서 아래로 보면 예수는 하늘 문을 열고 새 시대를 시작했다. 예수는 ‘서른 살에 하늘 문을 세울 일을 맡았고, 3년 동안 세상을 책망하는 채찍으로 묵은 누리를 다 털어 냈’으며, ‘문은 지 사흘 만에 새 생명의 싹이 나서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새 천지의 개벽은 이로 좇아 시작이다. 그 뒤로 인간은 천문(天門)으로 통하게 되었다.”⁸⁾ 예수는 하늘 문을 열은 이고, 예수의 삶과 말씀과 일로써 새 천지가 시작되었다.

다석은 서슴없이 예수를 ‘우리 님’이라 하고 ‘한나신 아들’(독생자)이라

5) 같은 글. 355쪽.

6) 같은 글. 355쪽.

7) 유영모, “하늘에 있지”, 『다석일지』(영인본) 상. 787쪽.

8) 유영모, “소식”(4), 『제소리』 355-6쪽.

고도 한다. 더 나아가서 예수를 ‘한우임’이라고도 한다. “오 예수여 내 마음에 한우임 그리스트”⁹⁾ 내 마음에서 예수는 ‘한우임’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독생자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낸 분이며 ‘내 마음’에서는 ‘한우임’, ‘한우(큰 위)를 인 분’이다. ‘한우’를 인 예수는 그리스트이고 ‘임’(主)이신 그리스트는 ‘늘 삶’(영원한 삶)이다.¹⁰⁾

2) 예수의 길 : 사람과 하나님이 서로 환하게 되는 길

다석은 죄와 속죄의 문제에 집착하는 것은 소극적이라고 보고, 생명과 빛에 대한 논의로 나아간다. 다석은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빛으로 왔다. 빛을 얻어라.”로 보다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생명과 빛에 대한 요한복음의 말씀은 “참 적극적이다...속죄는 너무도 소극적이다.”라고 했다.¹¹⁾ 속죄는 죄를 씻자는 소극적인 관심을 드러낸다면, ‘생명의 빛’을 얻는 것은 보다 적극적, 능동적인 관심과 자세를 드러낸다,

유영모는 속죄보다 생명과 빛을 얻는 일이 신앙과 인생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했다. 유영모는 요한복음 13장 31절과 17장 21절을 주목했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13:31)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17:21) 이 성경구절의 주제는 ‘영광’과 ‘하나됨’이다.

1961년 옥상에서 떨어져 20 여 일 동안 의식을 잃고 지냈을 때도 요한복음 13장과 17장에 생각을 집중했다. 17장 21절과 13장 31절은 똑같은 것인데 17장이 13장의 내용을 상세히 써놓은 것이라고 했다. 두 구절을 요약하

9) 『다석일지공부』 1. 259쪽. 1956년 1월 17일 일지에 쓴 글 “은날: 오 예수여, 내 마음에 한우임. 한엄 고디시여 나신 아들 때른 비르소서.”에 대해서는 같은 책. 314쪽 참조.

10) ‘세 북에 외움’, 『다석일지공부』 1. 262쪽.

11) 유영모, “밀알(1)”, 『다석일지』 (영인본) 상. 817쪽.

면 ①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음으로써 하나님도 영광스럽게 되고 하나님도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고 ②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며 ③ 하나님과 그리스도(“나”)의 사귄 안에서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라는 것이다. 다석은 예수가 한 일은 이것이고 오직 이것을 위해 예수가 세상에 왔다고 하였다.¹²⁾

다석은 1956년 4월 29일과 5월 8일에 이 구절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였다. 17장은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고 13장은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인자로 말미암아 아버지도 영광을 받았다”는 것인데 다석은 ‘인자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빼고, “인자가 영광을 받음으로써 아버지도 영광을 받았다.”고 이해해야 한다고 보았다.¹³⁾ 아버지와 ‘인자’(人子)의 일치를 강조한 것이다. 다석은 13장 31절에 대한 새로운 번역을 두 가지 제시한다. 1956년 4월 29일에는 “아들이 환함으로 아버지도 환함시키고, 아버지 또 절로 아들을 환하게 해 계심”이라고 했고 같은 해 5월 8일에는 “한우님이 저로 해서 환빛을 받으시고 한우님도 제로 해서 환빛을 저에게 주시리라”고 하였다.¹⁴⁾ 다석은 ‘영광’이라는 모호한 말 대신에 ‘빛’, ‘환 빛’(환한 빛, 照明)이란 말을 썼다. 그리고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환하게 된다거나 아버지가 아들을 환하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가 되어 서로 환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은 환하게 될 때 하나로 되고, 하나가 될 때 환하게 된다.

요한복음 17장 22-3절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영광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고,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셨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23절)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믿는 자들의 일치와 상호공속, 믿는 자들 사이의 일치와 사귄이 하나님과 인간의 영광(환한 빛)이며, 그 일치와 사귄에 이르는 것이

12) 『진리의 사람 다석 유영모』(下). 333쪽.

13) 『진리의 사람 다석 유영모』(下). 333쪽.

14) 『다석일지』(영인본) 상. 163쪽. 172쪽.

그리스도와 신앙인의 목적이다.

2. 기독교·유교·불교·도교의 회통

1) 다석의 유교 이해와 수용

다석은 기독교의 관점에서 유교를 보고 유교사상의 틀에서 기독교를 이해했다. 그가 유교와 기독교를 아우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과 정신 속에서 유교와 기독교가 통합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정신이 “모세와 예수, 그리고 공자와 맹자”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¹⁵⁾

(1) 부자유친(父子有親)

다석의 유교이해에서 두드러진 것은 부자유친에 대한 해석이다. 1956년 12월 17일의 일지에서 다석은 독일에서 신학공부하는 안병무를 생각하며 쓴 한시에서 “효의 신학을 내보이고 날마다 가온 짝기를 한다”(示孝神學日行·)고 하여 자신이 효의 신학을 한다는 것을 밝혔다.¹⁶⁾ 그는 효의 신학에 대해서 체계적인 논술을 하지 않았다. 부자유친에 대한 다석의 논의를 통해서 그의 효 신학을 추정할 수 있다. 부자유친에 대한 논의에서 다석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끌어들이므로써 유교의 사유지평과 기독교의 사유지평을 융합한다. 그는 하나님을 저버린 효(孝)를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함으로써 유교의 효사상의 경계를 열어젖혔다.

다석에 따르면 예수가 하나님을 상대로 부자유친하였으며, 하나님과 예수의 부자유친은 신약성경에 나타나 있다.¹⁷⁾ 하나님과 예수의 부자유친은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를 통해 하나님과 모든 인간의 부자유친으로 확장된다. 다석은 하나님을 탐구하는 궁신(窮神)을 부자유친으로 설명하고 다시 이 부자유친을 삼위일체로 설명하였다.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15) 『진리의 사람 다석 유영모』 (上). 111쪽.

16) 『다석일지』 (영인본) 상. 291쪽.

17) 『진리의 사람 다석 유영모』 (上). 395-6쪽.

형상과 씨를 가졌다는 점에서는 같고, 아버지는 절대적 차원에 있고 아들은 상대적 차원에 있으므로 차원이 다른 존재이다.¹⁸⁾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인 사람이 “아버지를 밤낮 그려보아야 제 얼굴 그리는 것”이며, 아들은 찾고 아버지는 기다리며,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연결하는 사랑의 성령이 있어야 한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원만하고 참 되게 하는 것이 성신(성령)이다.¹⁹⁾ 이처럼 부자유친은 상대적 존재인 인간이 절대적 존재인 하나님과 사귀고 만나는 관계를 나타내고, 삼위일체는 상대적 존재인 인간과 절대적 존재인 하나님이 관계하고 만나는 구조를 보여 준다.

다석에게 부자유친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귀면서 하나님의 아들 노릇을 잘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노릇을 한다는 것은 예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다석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주생명과 인류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²⁰⁾

(2) 씨울의 자리에서 유교를 비판하고 수용함

다석은 유교를 씨울의 자리에서 비판적으로 재해석하고 유교의 가르침을 확장하려 했다. 『서경』(書經)의 ‘여오’(旅獒)는 임금이 임금노릇 잘 하도록 가르친 말인데 다석은 오늘날에는 전 인류가 임금 노릇하는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였다.²¹⁾ 성경에 따르면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 자리에 이르고 하나님의 아들 노릇을 해야 한다. 다석은 토지개혁을 주장한 맹자와 장횡거를 높이 평가했다.²²⁾ 다석은 유교를 고난의 자리에서 보려고 한다. “공석불난(孔席不暖)”이라고 한다. 공자는 집에서 밥 먹을 때가 없다. 밤낮 집을 떠나 고생하면서 얻은 인간지가 유교의 가르침이다.

18) 박영호 엮음, 『多夕 柳永模 어록』. 두레, 2002. 20쪽.

19) 유영모, “하나”, 『다석일지』(영인본) 상, 759쪽.

20) 다석이 이해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7장 22-3절을 참조하라. 이에 대한 다석의 논의는 유영모, “소식4-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다석일지』(영인본) 상, 663쪽 참조.

21) 박영호 엮음, 『多夕 柳永模 어록』. 두레, 2002. 449쪽.

22) 박영호 엮음, 『多夕 柳永模 어록』. 두레, 2002. 455쪽.

유교가 오늘에도 우리에게 소용이 있다면 고난의 종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교가 고난을 떠나 안일을 찾으려면 유교는 죽고 만다. 사람은 안일에 죽고 부귀에 썩고 만다.”²³⁾ 다석은 유교를 고난의 자리, 씨울의 자리에서 보려고 했다.

다석은 유교를 성리학(性理學) 다시 말해 ‘사람의 성품을 연구하는 학문이며 종교’로 보고 ‘훌륭한 생명철학’이라고 했다.²⁴⁾ 다석은 주역의 사상을 끌어들이며 유교의 사상적 경계를 생명철학적으로 확장하였다. 주역에 나타난 유교의 기본정신을 길흉(吉凶)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밝혔다. “천하의 길흉을 만백성과 더불어 걱정을 같이 한다.(吉凶與民同患) 길흉을 백성과 같이 걱정하면 하나님(神)과 관계가 된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되면 말하지 않아도 생각하면 알게 된다.(神以知來)”²⁵⁾

그는 ‘신이지래’(神以知來)를 이렇게 풀이한다. “앞으로 나갔으면 하는 제 곳(얼나)으로 하나님과 같이 의논하고 생각하면 어느 만큼 은근한 중에 인도하는 것이 있어 깨닫게 된다.”²⁶⁾ ‘얼의 나’는 앞으로 나가려 하고 위로 솟아나려 하는 생명의 끄트머리이다. 천하의 길흉은 만백성의 삶과 죽음, 잘 살고 못 사는 일이다. 천하의 길흉을 만백성과 함께 걱정하면 ‘얼의 나’가 우주 생명의 중심인 하나님과 관계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하면 깨달음에 이른다. 다석의 사상은 개인의 내적 자아와 내적 깨달음에 한정된 좁은 사상이 아니다. 그의 사상은 개인의 내적 깨달음, 신적인 앎, 만백성과 더불어 걱정하는 일을 직결시킨 공적(公的)인 사상이다. 다석은 민족 사학인 오산학교와 3·1 독립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그의 사상적 노력과 통찰은 나라와 역사를 바로 잡는 일, 정의를 세우는 일과 연결되어 있다. 다석 사상의 배후에는 나라 바로 세움의 관심과 노력이 있다.

23) 유영모, “지건”, 『다석일지』 (영인본) 상. 805쪽.

24) 박영호 엮음, 『多夕 柳永模 어록』. 두레, 2002. 451쪽.

25) 박영호 엮음, 『多夕 柳永模 어록』. 두레, 2002. 436쪽.

26) 박영호 엮음, 『多夕 柳永模 어록』. 두레, 2002. 436쪽.

2) 다석의 불교 이해와 수용

다석은 공(空)사상에 기초해서 만물을 공으로 보고 하나님의 본성도 공으로 보았다. 그는 23세 때부터 “빔(空)이 맘 안에, 맘이 빔 안에 있다.”고 생각하였다.²⁷⁾ 그가 늘 빈당한데를 말한 것도 불교적이고, 해혼(解婚)하고 하루 한 끼 먹은 것도 금욕적인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한 것이다. 모든 집착과 욕심을 끊고 자유로운 삶을 살려는 것은 불교의 해탈을 추구한 것이다. 날마다 무릎 꿇고 앉아서 생각과 명상에 잠긴 것은 불교의 선(禪)을 수행한 것이다.

1959년 9월에 ‘반야심경’ 강의를 했다. 다석은 불교를 가까이 느꼈다. 그는 사람노릇을 바로 하려면 불교를 알아야 한다고 했고, 불교를 모르는 이 세상을 살 수 없다고도 했다.²⁸⁾ 다석은 자주 예수와 석가를 나란히 언급하였다. 다석은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진리인 “불성(佛性)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으로 보고 “하나님이 진리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면... 진리의 생명으로 영생한다.”²⁹⁾고 함으로써 기독교신앙과 불교를 연결시켰다.

(1) 마음과 삼독(三毒)

다석이 불교를 가까이 느끼고 석가를 좋아했지만 마음의 삼독(三毒, 탐욕, 노여움, 어리석음)과 해탈에 관한 논의에서 다석과 석가(불교)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다석은 삼독을 극복하려고 진지하게 노력했지만, 삼독을 긍정하기도 했다. 그는 삼독이 인간의 본능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삼독이 살림밀천이라고까지 말했다. “탐·진·치, 이것은 인생의 살림밀천이다. 그것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왔고 먹고 자랐으며 또 진취적이 된다.”³⁰⁾ 삼독이 살림밀천이 되어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과 깨닫고 자유로

27) 『진리의 사람 다석 유영모』(下). 333쪽.

28) 『진리의 사람 다석 유영모』(下). 198쪽.

29) 『진리의 사람 다석 유영모』(下). 197-8쪽.

30) 박영호 풀이, 『多夕 柳永模 명상록』. 두레 2000. 50쪽.

운 삶을 살기 위해서 삼독을 끊어버려야 한다는 사실의 모순을 다석은 인정하고 “이게 모순인데 그대로 되야 한다.”³¹⁾고 했다. 이런 모순을 알면서도 인간은 끊임없이 머무름 없이 마음을 비우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고 다석은 보았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應無所住而生其心)는 구절에 대해서 다석은 이렇게 말한다. “머무는 것 없이…마음을 자꾸 나가게 해야 한다. 내 마음을 자꾸 내가 내야 한다.”³²⁾ “산다는 것은 자꾸 움직여 나가는 것이다.”³³⁾

삼독에서 벗어나자는 것은 다석의 가르침과 석가의 가르침이 일치한다. 그러나 석가가 번뇌를 끊고 열반의 상태에 이르러 거기에 머무는 것을 강조했는데, 다석은 “내 마음을 자꾸 내가 내야 한다”고 하고 ‘산다는 것은 자꾸 움직여 나가는 것’임을 강조했다. 석가가 번뇌의 불꽃으로 모든 것이 불타고 있다면서 모든 것에 대해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했는데, 다석은 만물이 자기 존재를 피어내는 불꽃이고 ‘신의 말씀’을 나타내는 ‘글씨’라고 하고 물체를 신령한 주체로 보았다. 물론 석가는 물질과 삶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물질과 삶에 대한 인간의 탐욕과 집착을 문제로 삼았다. 그러나 석가가 주로 인간의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의 관점에서 물질과 삶을 보았기 때문에 물질과 삶에 대한 소극적인 시각이 두드러진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다석은 석가에 비해서 물질과 삶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관점을 드러내는 것으로 여겨진다. 석가는 번뇌에서 벗어나 깨달음에 이르는데 더 관심을 가졌다면 다석은 지금 여기의 삶이 ‘나아지고 나아가는 시간적인 변화’에 더 관심을 가진 것으로 여겨진다. 다석이 “일체가 하나님의 세계요, 일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성현의 지체는 일체를 살려내는 생명의 불이다.”³⁴⁾라고 했을 때 다석의 이런 관점이 뚜렷해진다.

31) 박영호 풀이, 『多夕 柳永模 명상록』. 두레 2000. 50쪽.

32) 유영모, “주일무적”, 『다석일지』 (영인본) 상. 751쪽.

33) 유영모, “무거무래역무주”, 『다석일지』 (영인본) 상. 748쪽.

34) 유영모, “몸성히, 맘놓이 뜻태워”, 『다석일지』 (영인본) 상. 800쪽.

(2) 허공은 하나님의 마음

다석은 공(空)을 참된 실재(實在)로 보고 공을 친밀하고 다정하게 느꼈다. 그는 “허공 같은 마음이 제일 좋다.”³⁵⁾면서 빔과 맘을 일치시킨다. 그에 따르면 석가는 “빔이 맘 안에, 맘이 빔 안에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예수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³⁶⁾고 말한다. 다석은 여기서 ‘맘과 빔의 일치’를 말하는 석가의 가르침과 ‘나와 아버지의 일치’를 말하는 예수의 가르침을 병치(並置)시키고 있다. 더 나아가서 다석은 ‘빔’을 최고로 높고 밝고 거룩한 것으로 보았다. “빔처럼 높고, 밝고, 거룩한 것은 없다.”³⁷⁾ 최고로 높고 밝고 거룩한 존재는 하나님 밖에 없다. 유영모는 불서(佛書)에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불만족스럽게 여기고 ‘불서(佛書)는 사고무친(四顧無親)³⁸⁾’이라고 했다. 유영모는 허공을 ‘하나님의 마음’이라 했고 신령한 허공을 하나님이라고 하였다.³⁹⁾ 그는 허공, 마음, 절대자가 하나라고 했다. “허공(虛空)과 마음... 결코 둘이 아니라는 느낌이다... 절대자, 하나님, 허공, 마음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안의 것과 밖의 것은 따로가 아니고 완전히 하나다... 공공허허(空空虛虛) 대배실(大不實), 비고 빈 것이 크고 큰 실상(實狀)이다.”⁴⁰⁾

다석은 ‘물공’(物空)이란 글에서 허공이 만물을 엄마처럼 포근하게 감싸 준다고 했다. 물과 공을 대비시켰다. “물체는 지나치게 빛을 발하여 한없이 멀리까지 밝힐 뜻을 드러내고(물수광대광원지, 物須光大曠遠志), 허공은 엄마처럼 무턱대고 얼싸안아 지극히 작은 나무떨기까지 모조리 친근하게 감싸주려고 한다(공만회포닐근울, 空漫懷抱暝近鬱).”⁴¹⁾ 다석은 “색계는 잡다하나 허공은 단일하다”(單一虛空色界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35) 『진리의 사람 다석 유영모』 (下). 328쪽.

36) 『진리의 사람 다석 유영모』 (下). 333쪽.

37) 『진리의 사람 다석 유영모』 (下). 328쪽.

38) 『진리의 사람 다석 유영모』 (上). 396쪽.

39) 『진리의 사람 다석 유영모』 (下). 199쪽.

40) 유영모, “빈탕한데 맞혀노리”, 『다석일지』 (영인본) 상. 890-891쪽.

41) 1955년 7월 8일 일지. 『다석일지공부』 1. 102-3쪽.

있다면 아마 그건 허공일 것”⁴²⁾이라고 했다.

다석은 ‘허공이 꽃을 열어 보여 주는 것’을 ‘하늘의 계시’라고 보았다.⁴³⁾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계시인 ‘단일허공’과 ‘나’의 일치를 추구한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가 가진 허공에 들어가야 한다. 이 대허공은 그대로 우리의 몸둥이가 될 수 있다.”⁴⁴⁾ 허공과 하나 되려면 “허공을 깊이 가슴 속에 삭이고 체면은 절대용납해서는 안 된다.” 남의 체면이나 자기의 체면을 생각해서 구부러드는 사람은 결코 단일허공의 진리에 들어갈 수 없다. “언제나 속(마음)은 끈게 밖(몸)은 바르게 이것이 허공과 하나 되는 비결이다.”⁴⁵⁾ “허공을 내 속에 지니는 일이 지건대축(至健大畜, 하늘에 머물러 크게 쌓음)이다.”⁴⁶⁾ 허공과 하나로 되어 ‘하늘에 머물러 크게 쌓음’ 사람은 물질과 허공을 하나로 보는 공색일여(空色一如)의 자유를 누린다.⁴⁷⁾

다석이 이해한 불교의 목적은 마음의 욕심을 뽑아서 빔에 이르러 공색일여의 자유, 해탈에 이르는 것이다. 모든 것에서 매이지 않는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다석이 허공을 진리로, 만물의 바탕으로 본 것은 불교의 가르침과 통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 것은 불교의 기독교적 수용이고 해석이다.

3) 다석의 도교 이해와 수용

다석은 21살 때부터 『노자』(老子)를 읽었고, 1959년 70살 때 우리말로 옮기고 나서 YMCA 연경반에서 노자를 강의했다. 다석은 『노자』를 순 우리말로 옮겼다. 예를 들면 20장에서 ‘이귀식모’(而貴食母)를 “어머니

42) 유영모, “빈탕한테 맞혀 놀이”, 『다석일지』(영인본) 상. 895쪽.

43) 유영모, “지건”, 『다석일지』(영인본) 상. 808쪽.

44) 유영모, “빈탕한테 맞혀 놀이”, 『다석일지』(영인본) 상. 895-6쪽.

45) 유영모, “지건”, 『다석일지』(영인본) 상. 808쪽.

46) 유영모, “지건”, 『다석일지』(영인본) 상. 808쪽.

47) “허공에 대한 애착이 미인에 대한 애착만큼 강할 때 비로소 사람은 공색일여(空色一如)라고 할 수 있다...(허공과 하나 되어) 지건대축(至健大畜, 하늘에 머물러 크게 쌓음)할 수 있는 사람만이 공색일여할 수 있다.” 유영모, “지건”, 『다석일지』(영인본) 상. 808쪽.

(젓) 먹기를 높이노라”고 읊겼다. 이에 대해서 박영호는 ‘어머니’를 ‘도’(道)라 보고, “ ‘대도’(大道)를 숨 쉬는 것이 어머니인 도를 먹는 것”이라고 했다.⁴⁸⁾

다석은 도를 숨 쉬고 도를 먹는 삶을 살았다. 다석이 단전호흡과 냉수마찰과 체조로 몸을 단련하고, 금욕생활에 힘쓴 것은 심신을 수련하는 도교의 전통과 연결되어 있다. 도교에서는 정기신(精氣神)이라고 하여 정에서 기운이 나오고 기운에서 신이 나온다고 생각했다.⁴⁹⁾ 그리하여 정력(精力)을 절제하고 단련하여 단(丹)으로 만들고 신선처럼 자유로운 도인의 삶을 추구했다. 다석은 도인의 삶을 살려고 했다. “옛날 사람은 전정성단(轉精成丹)이라고 하여 정을 가지고 단을 만든다고 하였다. 아랫배가 단단하게 단이 박힌 사람이 도인이다. 그들의 기운은 날듯하고 그들의 신기는 상쾌하며 그들의 정신은 고상하다. 이런 사람들을 도인이라고 한다.”⁵⁰⁾ 남녀관계를 끊고 정신적으로 사는 사람이 도인이고 신선이다.⁵¹⁾ 남녀관계를 넘어선 다석은 도인과 신선으로 살았다.

(1) 빈탕한데 맞혀놀이

다석이 모든 얽매임에서 벗어나 ‘빈탕한데’에서 자유롭게 신선처럼, 어린이처럼 놀려고 했다. 그가 늘 빈탕한데를 말하고, 인생을 놀이로 생각한 것은 들사람으로서의 그의 풍모와 기질을 드러낸다. 그는 ‘빔’과 ‘없음’에서 자유롭게 살려고 했다. 유명모는 노장(老莊)이 말한 ‘없’(無)을 알아야 하고 불교가 말한 ‘빔’(空)에 이르러야 진리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유명모는 무(無)에 대하여 말하기를 “있다는 것도 참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없다는 것도 참으로 없는 것이 아니다. 생사(生死)에 빠진 미혹과 환상에서 유(有)니 무(無)니 야단이다. 있느니 없느니를 아는 사람은 없다. 다만 우

48) 『진리의 사람 다석 유명모』(下), 190-1쪽.

49) 유명모, “남녀”, 『다석일지』(영인본) 상. 866쪽.

50) 유명모, “남녀”, 『다석일지』(영인본) 상. 866쪽.

51) 유명모, “남녀”, 『다석일지』(영인본) 상. 866쪽.

리의 감각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일 뿐이다.”⁵²⁾

다석은 어린이처럼 빈탕한데의 허공에서 놀려고 했다. ‘무’의 세계에서 모든 것을 벗어던진 다석은 자유롭게 노래하고 춤추며 기뻐했다. 세상에 대한 집착이나 명예, 물욕과 유혹을 다 버리고 없음의 빈탕한데에서 노는 삶이 그의 인생결론이었다.⁵³⁾ ‘빈탕한데’의 ‘한데’는 인위적인 손때 묻지 않은 ‘들’, ‘밭’, ‘자연’을 뜻하며 도가의 관심과 지향을 나타낸다. 다석에게서 이 ‘한데’는 ‘안’과 ‘밖’, 상대와 절대를 아우르는 전체를 나타낸다. “한데를 제 것으로 차지해야 한다. 그리고 거기서 놀아야 한다...정말 밖을 죄다 점령하면 안과 밖이 따로 없게 된다. ‘한데’에는 ‘안’도 다 들어 있다. 거기에는 세계...나라...우리 집...우리 몸둥이도 다 들어온다.”⁵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바깥 한데, 시원한 데서 우주의 바깥에서 놀자는 것은 장자의 ‘거닐어 노님’(逍遙遊)을 연상시킨다.

(2) 몸대로, 절로 되게(無爲自然)

다석은 노장(老莊)의 무위자연을 삶과 사상의 중요한 원리로 받아들였다. 다석에 따르면 자연(自然)은 되어가는 것이다. 되어간다는 것은 변화한다는 것을 뜻한다. 다석은 자연의 생명원리에 따르는 ‘맘대로 하고’, ‘몸대로 되게’를 ‘하계, 되게’라 하고 이것을 몸과 마음의 자유로운 경지로 본다.⁵⁵⁾ 이러한 ‘하계 되게’의 경지는 도가적이다. 이것은 자연과 몸을 정복하고 지배하며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몸은 그저 몸대로, 마음은 그저 몸대로’ 그냥 놓아두는 것이다. 사람과 자연에 대해 부자연한 간섭 버리고 사람을 사람대로 자연을 자연대로 둔다. “사람은 사람 노릇 하고 문(물건)은 문들 절로 되게!” 하자는 것이다.⁵⁶⁾

다석은 이것을 ‘절로, 제절로’의 이치이고 길이라고 한다. 이것이 못 생

52) 『진리의 사람 다석 유영모』 (下). 198쪽.

53) 유영모, “빈탕한데 맞혀 놀이”, 『다석일지』 (영인본) 상. 890쪽.

54) 유영모, “빈탕한데 맞혀 놀이”, 『다석일지』 (영인본) 상. 891-892쪽.

55) 유영모, “하계 되게”, 『다석일지』 (영인본) 상. 809쪽.

56) 유영모, “하계 되게”, 『다석일지』 (영인본) 상. 810쪽.

명과 사물이 제 본성에 따르고 제 바탈(本性)을 실현하는 진리의 길이다. 세상이 불행하고 혼란스러워진 것은 이 ‘절로’의 길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길로 가면 만족할 만한 세상이 온다.⁵⁷⁾

이 길에는 기존의 완성이 없다. 늘 열린 길이고 스스로 힘써야 할 길이다. 다석은 이 길을, 완성되거나 결정되지 않은 원고, 늘 완성을 위해 써야 할 원고라는 의미에서 미정고(未定稿)라고 했다.⁵⁸⁾ 다석은 또한 이 길을 ‘사랑의 길’(仁道)이라고 했다. 이것은 몸(몸)대로 하고 몸대로 되는 ‘제절로’의 길이지만 늘 미완성의 길이므로 사랑으로 힘써 이뤄야 할 길이다. 그러나 이 길은 사랑으로 가야 할 길일 뿐 아니라 사랑을 이루는 길이기도 하다.⁵⁹⁾ 왜냐하면 사랑 안에서 생명과 존재는 실현되고 완성되는 ‘제절로’의 길에 들기 때문이다. 인간과 물건, 마음과 몸이 ‘하게 되게’ 하는 것은 사랑뿐이다. 이 사랑의 길은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스승과 제자가 함께 사랑(仁)을 이루어가는 길이다. 다석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온고지신(溫故知新)으로 설명했다. 다석에 따르면 온고지신은 “묵은 것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가는 것”이다. 이 사랑의 길을 가는 삶은 ‘자꾸 새롭게 나가는’ 것이다.⁶⁰⁾

‘맘을 마음대로 하고 돈을 돈대로 되게’하는 ‘절로 제절로’의 이치에 따라 사랑의 길을 가는 마음이 도심(道心)이다. 도심(道心)은 진리대로 이치대로 하려는 마음이다. 이치대로 하면 이롭다.⁶¹⁾ 도심은 인위적이고 제도적인 억압에서 벗어나 맘과 몸이 자연생명의 힘과 원리에 따라 살자는 무위자연의 마음이고 사람과 물건이, 정신과 몸이 ‘하게 되게’ 하려는 사랑의 마음이다.

인위적으로 간섭하지 않는 도심은 ‘없음’의 미묘하고 지극한 자리(無極)에 이른 마음이다. 어떻게 미묘하고 지극한 자리의 도심에 이르는가? 다석

57) 유영모, “하게 되게”, 『다석일지』 (영인본) 상. 810쪽.

58) 유영모, “하게 되게”, 『다석일지』 (영인본) 상. 811쪽.

59) 유영모, “하게 되게”, 『다석일지』 (영인본) 상. 810쪽. 810-2쪽.

60) 유영모, “하게 되게”, 『다석일지』 (영인본) 상. 811-2쪽.

61) 유영모, “하게 되게”, 『다석일지』 (영인본) 상. 811-2쪽.

은 공신지화하여 신통(神通)하면 만물만사(萬物萬事)의 변화와 변천을 알게 되고, 만물만사의 변화와 변천의 이치를 알면 무엇에 매이거나 무엇을 모으려는 맘에서 벗어나 공평하고 평등한 마음에 이른다(62) 자연과 역사의 변화하는 이치에 따르는 도심이 이롭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도심을 가지고 이마에 땀 흘리고 살면 이보다 더 즐겁고 호강스러운 일이 없다. 그러나 권력과 금력으로 남을 눌러서 호강하는 사람은 ‘자기가 땀 흘리는 대신에 남에게 땀 흘리게 하는’ 큰 죄악을 짓고 있다(63)

다석이 ‘하게 되게’ 하는 ‘제절로’의 길을 가려고 한 것은 도가적이다. 그러나 이 길이 미완의 길이고 스스로 땀 흘려서 사랑으로 늘 새롭게 이루어야 할 길임을 강조한 것은 삶에 대한 다석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나타낸다.

3. 회통(回通)의 형성

다석은 기독교와 유교, 불교, 도교를 사상적으로 회통시킨 종합적인 사상가이다. 인생의 결론으로 제시한 ‘빈탕한데 맞혀노리’에는 다석 사상의 종합적 성격이 잘 드러나 있다. 이 글에서 다석은 세상일을 다 놀이로 보고 빈탕한데를 맞추어 놀자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늘 제사를 드리는 자세로 살자고 했다(64) 하나님을 모시는 일은 기독교적이고 제사지내듯 정성을 다하는 자세는 유교적이고 빈탕은 불교적이고 한데에서 놀자는 것은 도교적이다. 그의 삶과 사상에는 기독교의 인격신앙, 유교의 성실함, 불교의 공사상, 도교의 무위자연사상이 녹아 있다.

다석이 여러 종교와 사상을 종합한 사상적 정신적 근거는 무엇일까? 그가 유교, 불교, 도교와 기독교를 하나로 꿰뚫는 사상에 이를 수 있었던 근거를 다섯 가지로 들 수 있다.

62) 『다석강의』 247-8쪽.

63) 유영모, “하게 되게”, 『다석일지』 (영인본) 상. 812쪽.

64) 유영모, “빈탕한데 맞혀노리”, 『다석일지』 (영인본) 상. 891-892쪽.

첫째, 다석은 역사적 예수에도 기독교교리에도 매이지 않고 오늘 여기의 삶에 충실했다. 삶은 자유롭고 다양한 모습으로 자라나고 중층적이고 복잡한 형태로 발전하면서도 서로 교감하고 감응하고 소통한다. 삶 자체가 다양하면서도 하나로 통하는 것이다. 삶에 충실한 생명 철학자였던 다석은 서로 다른 사상과 경향을 하나로 꿰뚫고 종합할 수 있었다.

둘째, 다석은 한민족의 정신과 사상에 충실한 사상가였다. 한민족의 정신적 원형질인 한과 한사상은 크게 하나로 끌어안는 포용적, 종합적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다른 것들을 하나로 결합하는 원리와 품을 제공한다. 사상과 정신의 회통은 동양적이고 한국적이다. 동아시아의 사상은 천인합일, 원융합일에서 보듯이 모든 것을 하나로 아우르는 통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한겨레의 정신적 원형질은 ‘한’(크고 하나임)이다. 한국인의 사상적 천재성은 하나로 꿰뚫는데 있다. 최치원, 원효, 지눌, 율곡, 수운, 해월, 다석, 함석헌은 모두 대중합의 사상가이다.

셋째, 기독교의 하나님 신앙이 모든 것을 하나로 끌어안고 통하게 했다. 다석이 유교, 불교, 도교, 기독교를 종합하는 끈은 기독교의 하나님 신앙이다. 하나님 신앙이 유불도를 꿰뚫고 있다. 부자유친을 하나님 관계로 보고, 허공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유와 무, 태극과 무극의 통합을 하나님으로 보았다.

넷째, 다석이 실제로 동서고금의 사상과 정신을 종합하는데 이르게 한 것은 하늘과 땅과 자신이 하나가 되는 다석의 체험적 깨달음이었다. 모든 것을 하나로 꿰뚫는 체험적 깨달음이 동서고금의 정신과 사상을 하나로 통하게 하였다.

다섯째, 동서문명이 융합하는 문명사적 상황과 현실이 동서정신문화를 통합하는 사상에 이르게 했다. 이러한 문명사적 상황과 현실에 충실하게 살았던 다석은 평생 동서문명의 융합을 의식적으로 추구하였고, 자신의 삶과 정신 속에서 동양과 서양의 정신과 문화를 통합하였다. 다석은 일생 동안 한국, 아시아의 문화적 주체성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과 서양문화를 주체적으로 받아들여 했으며, 이러한 노력의 자연스런 귀결로서 ‘동양

문명의 뼈에 서양문명의 골수를 넣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오랜 세월에 걸친 이러한 의식적인 노력과 탐구를 통해서 다석은 동서고금의 정신과 사상이 하나로 통하는 경지에 이르게 된 것이다.

유교, 불교, 도교, 기독교는 모두 저마다의 삶과 문화에서 자신들의 종교 사상을 형성하고 발전시켰다. 이들은 저마다 삶의 어떤 측면과 성격을 존중하고 발전시킨 것으로 보인다. 유교는 사회의 현실 속에서 인간의 본성을 실현하고 바른 인간관계를 이루고 나라를 바로 세우려 했다. 인간의 사회 질서와 제도를 존중하고 그 질서와 제도를 통해 인간생명의 본성을 실현하려 했다. 불교는 인간생명의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생명의 맹목적이고 폭력적인 본능을 극복하고 마음의 순수한 자유에 이르려 했다. 폭력적이고 불순한 생명의지를 정화하여 순수하고 평화적인 생명의지에 도달하려고 하였다. 도교는 인위적이고 제도적인 억압과 매임에서 벗어나 대자연의 생명력과 원리에 따라 소박하고 힘 있는 삶을 살려고 했다. 히브리즘을 이어받은 기독교는 역사와 사회의 불의와 모순으로 가득한 삶속에서 정의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 삶의 주체와 변화를 추구했다.

이 모든 종교들은 저마다 삶을 깊고 총체적으로 다루면서도 삶의 어떤 측면과 차원을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다. 각 종교들이 저마다 독특한 역사와 문화의 전통 속에서 형성되고 발전되었기 때문에 독특한 개성과 강조점을 갖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석은 동서의 종교와 문화가 합류하는 문명사적 상황과 현실에서 살았기 때문에 동서의 정신과 사상을 종합할 수 있는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자리에 있었다. 세계의 정신과 문화가 합류하는 오늘의 세계문명사적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삶의 철학은 이 모든 종교 사상들을 회통(回通)할 수 있어야 한다. 기독교 신앙을 깊이 받아들이고 동양종교사상을 깊이 탐구한 다석은 생명과 정신에 대한 깊은 체험과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 종교의 사상들을 생명철학 안에 통합할 수 있었다. ❷